



중학도 역시 EBS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2



무료 강의 제공



문법

1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2

담화의 개념과 특성

3

한글의 창제 원리

대단원 평가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학습 목표**
-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을 알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더 알아 두기

+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층: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비속어는 안 됨)
- 시기: 현대에 사용하는 말(옛말은 안 됨)
- 지역: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지방어는 안 됨)
- 원칙으로 함: 예외를 인정함.

+ 받침의 유형

- 출받침: 하나의 자음으로 된 받침 (ㄱ, ㄴ, ㄷ 등)
- 쌍받침: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 (ㄱ, ㅃ 등)
- 겹받침: 서로 다른 두 자음으로 구성된 받침 (ㄱ, ㅌ, ㅍ 등)

1 단어의 정확한 발음 (* 이 교재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장음과 단음을 구별하지 않음.)

(1)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② 국어의 전통성과 ③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따른다.
- 현대 서울말에서 사람들에게 따른 발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통에 따라 정한다.
-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2) ‘ㄴ’의 발음

제5항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의사[의사], 희망[희망],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예]

(3) 받침소리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예 닦다[닥따], 키웁[키웁], 옷[옵], 있다[읷따], 젖[젇], 꽃[꼇], 솥[솇], 앞[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ㅍ,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녀[네], 앓다[안따], 닭[닥], 삶[삼]

예로 개념 확인

- ① (가) 은주: 나는 장래에 ②[이사]가 되고 싶어.
선호: 의사? 이사?
- 선호: 우리 집 ③[다기] 어디에 있지?
은주: 다기를 왜 여기에서 찾아?
선호: 병아리하고 있는 걸 봤거든.
- 어머니: ④[우서른]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해라.
선호: 우서른이 누구인데요?

(나)

민희야, 지금 잠깐 볼 수 있니? 나

민희 응, ⑤돼지. 왜? 나

돼지라고? 너무 심한데? 나

민희 무슨 말이야? 만나서 ⑦예기해. 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민희 갑자기 왜 그래? ⑧어의없네. 나

여기에서 어의가 왜 나오니? 나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웃이[오시], 있어[이써], 젊어[절머], 읊어[을퍼], 걸웃[거돋], 꽃 위[꼬뒤]

2 단어의 정확한 표기

(1)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①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②어법에 맞도록 함을 ③원칙으로 한다.

- ①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그대로 적는다.
- ②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본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 ③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 자주 틀리는 표기

-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 오뚝이(○) / 오뚜기(×), 만듬(○) / 만듬(×)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1)
예 오랜만(오래간만)(○) / 오랫동안(×), 웬지(왜인지)(○) / 웬지(×)
- 준말을 헛갈리는 경우 (2)
예 되- / 돼(‘되어’의 준말), 뵈- / 뵈(‘뵈어’의 준말)
- 발음이 같은 경우
예 달하다 / 다치다, 맞하다 / 마치다, 반듯이 / 반드시, 붙이다 / 부치다

더 알아 두기

✦ 제15항의 [붙임] 규정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제10항과 제11항에 의해 선택된 발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됨.

예 녀 없다 → [녀업따] → [녀겹따]

✦ ‘오랜만’과 ‘오랫동안’

- 오랜만: ‘오래간만’의 준말로 ‘간’의 받침소리인 ‘ㄴ’이 붙음.
- 오랫동안: ‘오래’와 ‘동안’의 합성어로 사잇소리 ‘ㅅ’이 붙음.

✦ ‘웬지’와 ‘웬’

- 웬지: ‘왜인지’의 준말
예 웬지 불길하다.
- 웬: ‘어찌 된’ 또는 ‘어떠한’의 의미를 갖는 관형어
예 웬 일이나?, 웬 낯선 사람

- 1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 (가)의 각 대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발음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 2 ‘ㄴ’의 발음: 첫소리에 오는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사’는 [의사]라고 해야 한다.
- 3 겹받침의 발음: ‘닭이’를 [달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기]라고 잘못 발음해서 ‘다기(차를 담는 그릇)’로 오해할 수 있다.
- 4 받침의 발음: ‘웃어른’은 [우더른]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서른]이라고 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 5 정확한 표기의 필요성: 민희는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여 친구에게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6 ‘되지’와 ‘돼지’: ‘되지’를 ‘돼지’로 잘못 써서 상대방이 놀림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7 ‘얘기’와 ‘예기’: ‘이야기’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얘기’라고 해야 하는데, ‘예기’라고 썼다.
- 8 ‘어의’와 ‘어이’: ‘어의’는 ‘임금을 치료하던 의원’이다. ‘일이 너무 뜻밖이라 기가 막히다.’라는 뜻으로는 ‘어이없네.’라고 써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 **해제:** 이 글은 표준 발음법의 총칙을 통해 표준 발음의 사정 원칙을 소개한 후, 표준 발음법 제2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모음 ‘-’와 받침소리의 발음 규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 **주제:** 모음 ‘-’와 받침소리의 올바른 발음

내용 연구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

표준 발음이 필요한 이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구절 풀이

• 하지만 ~ 내용을 덧붙였다.:
현대 서울말의 발음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에 표준 발음을 정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달리 젊은 사람들은 장단음을 잘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리의 길이를 구별한 국어의 전통을 고려해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킨다.

낱말 풀이

- *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 **규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 * **허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표준 발음법

(가) 다음 문장을 읽어 보자.

㉠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 있다.”

이 문장을 [나에게는 아직 ‘비지’ 나마 인따]나 [나에게는 아직 ‘비시’ 나마 인따]로 발음하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인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것이다. ‘빛이’에 해당하는 발음, ‘비’에 해당하는 발음, 정확한 발음이 필요한 이유, ‘표준 발음법’의 내용

▶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이유

(나)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발음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에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규정 하지만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따라 발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로부터 지켜 온 우리말의 전통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른다고 하면서 언어생활의 *‘합리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규정과는 다른 발음이 더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맛있다’는 [마딕따]로 발음해야 하지만, [마실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두 발음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는 ‘다만’을 추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표준 발음은 국어의 일반적 규범에 맞는 발음임, 합리성을 고려한 발음, 실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발음

▶ 우리나라의 규정

모음 ‘-’의 발음

(다) 모음 ‘-’는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음운이다. 원칙적으로 ‘-’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가 ‘희다’처럼 자음과 함께 사용될 때나 ‘나의’처럼 조사로 사용될 때, 그리고 ‘협의’처럼 첫음절 외에 사용될 때에는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마련하였다. ‘-’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경우에는 [-]가 아닌 [ㅣ]로 발음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음절을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ㅣ]나 [꺠]로 발음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희다’는 [히다]로 발음해야 하며, ‘나의’는 [나ㅣ] 또는 [나에]로, ‘협의’는 [혀비] 또는 [혀비]로 발음할 수 있다. [-]와 [ㅣ]를 잇달아 발음해야 함,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기 어려움, 예) ‘희다’, 예) ‘협의’, 예) ‘나의’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ㅣ]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꺠]나 [ㅣ]도 인정함.

▶ 모음 의 발음

01 **중요**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준 발음은 서울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을 고려하였다.
- ③ 표준 발음에는 비속어나 은어 등의 다양한 언어가 폭넓게 포함되었다.
- ④ 표준 발음을 정하는 데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지도 고려하였다.
- ⑤ 표준 발음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범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02 **중요** 이 글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희망[희망]이 생겼다.
- ②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의자[의자]를 주셨다.
- ③ 궁금하신 사항은 본부에 문의[무:니]해 주십시오.
- ④ 동생의[동생에] 친구들에게 과일을 깎아 주었다.
- ⑤ 이 세상에 정의[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03 ㉠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 ▶ 조건 ▶
- 문장 전체를 소리 나는 대로 쓸 것.
 - 발음을 표시하는 ‘[]’와 함께 쓸 것.

04 ㉠과 같이 두 개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고맙다 ② 맛없다 ③ 멋있다
- ④ 속이다 ⑤ 재미있다

05 **서술형** 이 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 의미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 ▶ 보기 ▶
- 제5항 ‘ㅈ, ㅊ, ㅋ, ㆁ,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 조건 ▶
- ‘이중 모음’, ‘단모음’, ‘예외’라는 말을 넣어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표준 발음법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사정 원칙은 표준 발음법의 제1장 ‘총칙’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러 형태의 발음이 있을 경우에는 국어의 역사적인 전통과 국어의 규칙에 따른 합리성을 고려하여 규정한다.

표준 발음의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은 ㉠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 전통성과 ㉢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따름.
- ②: 국어의 역사적 전통을 고려함.
- ③: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정함.

‘ㄴ’의 발음

본래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ㄴ’이 자음 뒤에 오거나, 둘째 음절 이하에 올 경우, 혹은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ㄴ]로 발음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다른 발음을 허용하고 있다.

	원칙	자음 뒤에 올 경우	첫음절 이외의 경우	조사로 쓰일 경우
발음	[-ㄴ]	[l]	[-ㄴ] 또는 [l]	[-ㄴ] 또는 [ㄴ]
용례	의사[의사]	희대[히다]	협의[허비/허비]	나의[나의/나에]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내용 연구

받침소리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받침의 유형	홀받침, 쌍받침, 겹받침
받침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침이 어말에 오는 경우 •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구절 풀이

• 이번에는 ~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음 'ㄷ, ㅅ, ㅆ, ㅈ, ㅊ, ㅋ' 중 음절의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ㄷ]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음은 [ㄷ]으로 바뀌어 발음이 된다. 이때, [ㄷ]을 '대표음'이라고 한다.

• 먼저 뒤에 ~ 정확한 발음이다: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자립성이 없어 앞말과 분리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말의 받침소리가 따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모음 위치에 올라와 소리가 난다.

날말 풀이

- * 받침소리: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중심.
- * 겹받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
- *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

* 받침소리의 발음

(가) 이번에는 '낫', '낫', '낫', '낫', '낫'을 각각 발음해 보자. 다섯 개의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단어의 *받침소리인 'ㅅ', 'ㅈ', 'ㄷ', 'ㅌ', 'ㅊ'이 모두 [ㄷ]으로 발음되어 [낫]이라고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는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ㅃ, ㅅ, ㅆ, ㅈ, ㅊ, ㅋ, 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밖'과 '부엌'은 각각 [박]과 [부억]으로 발음해야 하며, '있다'와 '있'은 각각 [인따]와 [입]으로 발음해야 한다. ▶ 어말 또는 앞에서 홀받침과 쌍받침의 발음

(나) 그렇다면 받침소리로 *겹받침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겹받침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를 발음하면 된다. 이때 발음을 하는 자음은 앞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넋'과 '값'은 앞의 받침이 발음되어 [넉]과 [갑]으로 소리 나고, '삶'은 뒤의 받침이 발음되어 [삼]으로 소리 난다.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의 발음

(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겹받침은 '래'와 '러'이다. 일반적으로 '래'는 '여덟[여덜]'처럼 [ㄹ]이 발음되지만, '빨대[밥:파]', '빨고[밥:꼬]'처럼 '빨-'은 [ㅂ]으로 발음된다. 이외에 '래'이 [ㄹ]으로 발음되는 단어로는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가 있다. 또한 '러'는 '닭[타]', '맑다[막따]'처럼 [ㄱ]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ㄱ' 앞에 쓰이는 용언 어간의 '러'는 [ㄹ]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읽지'는 [익찌]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 '래'와 의 발음

(라) 이번에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의 받침소리 발음에 대해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먼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이다. '밭에'와 '깎아', '흙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밭', '깎다', '흙'이 [받], [깎따], [흙]으로 발음되는 원리를 적용하면 [바테], [까가], [호기]로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바테], [까까], [홀기]가 정확한 발음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홀받침이나 쌍받침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겹받침은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고 둘째 받침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 어미, 접미사가 올 때 받침소리의 발음

(마)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발음해야 한다. '밭 아래'는 [바타래]가 아닌 [바다래]로 발음해야 하며, '꽃 위'는 [꼬취]가 아닌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받침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다. 한편 '닭 앞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닭[타]'처럼 독립형으로 쓸 때 발음하는 자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다가페]로 발음한다.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가 올 때 받침소리의 발음

06 이 글을 통해 볼 때, 받침소리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받침으로 사용된 자음이 대표음인가, 아닌가?
- ② 받침으로 오는 자음이 쌍받침인가, 겹받침인가?
- ③ 받침이 포함된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
- ④ 받침소리의 뒤에 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가?
- ⑤ 받침소리의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가, 형식 형태소인가?

07 다음 중 단어의 받침이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 ① 떡 ② 강 ③ 붓 ④ 곧 ⑤ 삽

08 <보기>의 문장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 보기 ▶
네가 읽지 말고 동생이 읽게 해라.

09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받침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

- ①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참 곱다.
- ②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③ 제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물건을 넘겨야 했다.
- ④ 성진과 여덟 선녀는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다.
- ⑤ 그는 시를 한 수 읊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유유히 떠나갔다.

10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받침 'ㅅ'이 서로 다르게 소리 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알뜰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오슬] 발견했다.
- ㉡ 친구의 편지를 옷 안[오단] 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

- ◀ 조건 ▶
-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받침소리의 발음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의 받침소리는 받침의 종류나 뒤에 오는 음운 또는 형태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을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표준 발음법 제4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홀받침이나 쌍받침인 경우	겹받침인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함. • 나머지 받침은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받침 중 앞의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 ➔ ㄱ, ㄴ, ㄹ, ㄷ, ㄹ, ㅁ, ㅂ • 두 개의 자음 중 뒤의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 ➔ ㄹ, ㄹ, ㄹ
모음의 형식 형태소 앞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소리로 발음하고, 둘째 받침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모음의 실질 형태소 앞	받침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꾼 뒤,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발음하는 자음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ㄹ'과 'ㄷ'의 발음

'ㄹ'과 'ㄷ'이 받침으로 사용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뒤에 오는 음운이나 형태소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발음	예외적인 발음
'ㄹ'의 발음	[ㄹ]로 발음됨.	'뺨-'을 어간으로 하는 단어나, '뽕죽하다', '뽕동글다'는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함.
'ㄷ'의 발음	[ㄱ]으로 발음됨.	뒤에 'ㄱ'이 오는 용언 어간에서는 [ㄹ]로 발음함.

2

자문 연구

단어의 올바른 표기

- **해제:** 이 글은 학생이 쓴 글에 나타난 잘못된 표기를 예로 들면서 틀리기 쉬운 말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1항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 원리를 설명하면서 정확한 표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틀리기 쉬운 말의 올바른 표기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맞춤법 규정이 필요한 이유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의도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구절 풀이

- 위의 글을 ~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표기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표기가 내용 전달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한글 맞춤법은 ~ 원칙으로 한다.: 표음주의(소리대로 표기함)와 표의주의(어법에 맞도록 표기함)를 동시에 적용하는 한글 맞춤법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 예를 들어 ~ '어법에 맞게 쓴다.'이다.: 소리대로 적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어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낱말 풀이

- * **표기:**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
- * **어법:** 말의 일정한 법칙.
- * **오뎅이:** 밀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뎅오뎅 일어서는 어린이들의 장난감.
- * **접미사:**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여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가)

오늘은 한울이 푸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오늘 아침에는 오투기처럼 벌써 일어날 수 있었다. 오랫만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한결 낱은 것 같다. 사실 동아리 회장이 돼고 난 이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 많았다. 그런데 어제 발표회를 맞히고 나니 홀가분한 기분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아마 동아리 회장을 않 맡았으면 이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은주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제 공연 포스터 밑에 '회장님과 동아리 친구들이 만들. 은주가 숨.'이라는 글을 적어 넣은 사진과 함께 '회장님, 월요일에 보요'라는 인사를 보낸 것이다. 고생한 동아리 친구들에게 손 편지라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토요일 아침이다.

(나) * 위의 글을 읽다 보면 무언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 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을 참고하여 우리말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 올바른 []의 필요성

(다) 이에 앞서 먼저 우리말의 맞춤법 규정부터 살펴보자.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①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이다. 이는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그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위의 글에서 '한울'은 [하늘]로 읽는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한울'이 아닌 ① '하늘'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어를 []대로 적는다

(라) 그런데 모든 말을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 예를 들어 소리대로 '꼬치', '꼰따발', '(㉠)'(이)라고 적으면 '꼬츠', '꼰', '꼰'이 모두 '꼰'이라는 말에서 온 것임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 '꽃이', '꽃다발', '꽃나무'처럼 '꼰'이라는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도록 허용한 것이 '어법에 맞게 쓴다.'이다. 위의 글에서 * '오뎅이'는 '오뎅하다'라는 형용사에 *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말이다. 따라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오뎅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에 맞게 쓴다.

(마)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언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언어생활을 하다 보면 위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을 더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으)로 한다.

01 (가)의 '학생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아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된다.
- ②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지 않아 읽으면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 ③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
- ④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 ⑤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글 쓰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밝히고 있다.
- ③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함을 알 수 있다.
- ④ 한글 맞춤법이 예외가 없는 의무적 규범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한글을 표기할 때 본래의 형태를 밝히어 적도록 허용함을 말하고 있다.

03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과 같은 표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가 웃으며 사과 한 알을 건네주었다.
- ② 시간이 지나자 구름 속으로 달이 사라졌다.
- ③ 기분을 바꾸려고 운동장을 달리다 들어왔다.
- ④ 들판에 누워서 오랫동안 나무를 바라보았다.
- ⑤ 어제는 동생과 손가락에 고운 봉숭아물을 들었다.

04 ㉠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05 <보기>의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고, 그렇게 표기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물이 얼어서 (얼음 / 어름)이 되었다.

맞는 표현	㉠
표기 이유	㉡

◀ 조건 ▶
 • ㉠은 <보기>에서 단어를 찾아 쓸 것.
 • ㉡는 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하여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은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에 나와 있다. 이를 통해 한글의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게 쓰는 표의주의를 함께 적용함을 알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
 한글 맞춤법은 ①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②어법에 맞도록 함을 ③원칙으로 한다.

- ①: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그대로 적음(표음주의).
- ②: 본래의 형태를 밝혀 그대로 적어 줌(표의주의).
- ③: 상황에 따른 예외를 인정함.

○ 예문의 잘못된 표기 (1)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잘못된 이유
한을	하늘	[하늘]로 소리 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으면 '하늘'이 되는데, 소리대로 적지 않음.
오뚜기	오뎅이	'오뎅하다'에서 온 말이기에 원래 형태인 '오뎅'을 밝혀 적어 줘야 함.

내용 연구

표기를 잘못 하는 대표적인 경우

- 준말 표기의 오류
: 오랜만/*오랫만, 웬지/*웬지
되-/돼, 봐-/배, 안/않-
- 동음이의어 표기의 오류
: 낯은/나은, 붙여/부처
- 명사형 표기의 오류
: 만들/*만듬, *쏟/쏟
- 어휘의 부정확한 표기
: 한테서/*한테서, 함께/함께
(* 어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기)

구절 풀이

- '오랜만에' ~ 라고 써야 한다:
준말의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준말의 경우는 대부분 뒷부분에 본래 말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에서 줄었는지를 찾아보면 올바르게 표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말의 표기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32항~제40항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 발음이 같아서 ~ 고쳐야 한다:
동음이의어의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말하는데, 동일한 발음 때문에 서로 헷갈릴 수가 있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는 단어의 형태와 뜻을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낱말 풀이

- * **웬지**: 왜 그렇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 * **헛갈려**: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해.
- * **수시**: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가) ***오랫만에**와 **오랜만에**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말이 어떤 말이 줄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은 **오래간만에**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오랫만에**가 아닌 **오랜만에**라고 써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웬지**와 **웬지**이다. 이 말은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다. 따라서 **웬지**라고 쓰면 안 되고, **웬지**라고 써야 한다.

▶ **오랜만**과 **오랫만**의 표기

(나) **되-**와 **돼-**의 구분은 사람들이 가장 **헛갈려** 하는 맞춤법 중 하나이다. 둘 중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될 때에는 **돼-**는 **되어**가 줄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즉, **되어**로 풀어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돼-**로 쓰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되어니**라고 쓸 수 없으므로 **되니**라고 써야 하며, **되었다**로 쓸 수 있으니 **뻘뻘**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 **돼고**는 **되고**로 바꿔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봐-**와 **배-**의 구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 **봐어**로 바꿀 수 있는 은주의 문자는 **월요일에 배어**라고 써야 한다.

▶ **되-**와 **돼-**, **봐-**와 **배-**의 구분

(다) 준말의 정확한 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이외에도 많다. **안**과 **않-**도 그중의 하나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따라서 **안**과 **않-**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줄이기 전의 형태로 바꿔 보면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않 말았으면**은 **아니하 말았으면**이 되므로 어색하다. 따라서 **아니 말았으면**이 될 수 있도록 **안 말았으면**으로 쓰든지, **말지 아니하였으면**의 준말인 **말지 않았으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 **안**과 **않-**의 구분

(라) **발음이 같아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글에서 사용한 **맞히고**는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쓰려는 말은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뜻을 가진 **마치고**이다. **낯은**과 **나은**도 많이 헛갈려 하는 말인데, 위의 글에서는 **이전보다 더 좋다**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은**으로 써야 한다. 또한 **붙여야겠다**의 **붙이다**도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라는 의미의 **부치다**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부쳐야겠다**로 고쳐야 한다.

▶ **이/가** 같은 말의 표기

(마) 한편 **만듬**은 **만들다**의 명사형을 잘못 쓴 것이다. **만들-**에 **-ㅁ**을 결합한 **만들다**의 명사형은 원래 형태를 밝혀 **만듬**이라고 써야 한다. 반면에 **쏟**은 **쓰다**의 명사형으로, **쓰-**에 **-ㅁ**이 결합해 만들어지므로 **쏟**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이외에도 **은주한테서**나 **함께**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틀리는 말도 있다. 이 말들은 각각 **은주한테서**, **함께**로 써야 한다.

▶ **만듬**과 **쏟**의 표기

(바) 맞춤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사를 잘못 전달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말의 맞춤법 규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다 기억하고 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는 **수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올바른 표기의 필요성과 활용의 중요성**

06 **중요** 다음 중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오늘은 웬지 조용한 음악을 듣고 싶다.
- ② 기념우표를 붙인 편지를 친구에게 부쳤다.
- ③ 전학을 간 친구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다.
- ④ 오랫동안 만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고 왔다.
- ⑤ 흰둥이는 갓 나온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07 (가)~(마) 중, <보기>의 글쓴이에게 올바른 표기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

지난 주말에 1반과 축구 경기를 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실수를 해서 경기에 지고 말았다. 친구들과에게 정말 미안했다. 다음 경기에서는 반듯이 골을 넣어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8 **중요**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멋진 운동화를 살.
- ② 동생에게 생일선물을 준.
- ③ 점심 급식을 맛있게 먹음.
- ④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달린.
- ⑤ 친구와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놀.

서술형

09 이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대화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은 부분을 찾고, <조건>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쓰시오.

◀ 보기 ▶

어머니: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지 않을래?
아들: 바람은 어제 충분히 쐬어요. 오늘은 집에서 책이나 읽으려고요.

틀린 표현

㉠

바른 표현

㉡

◀ 조건 ▶

- ㉠에는 한 단어를 찾아 쓸 것.
- ㉡는 고쳐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Special lecture

예문의 잘못된 표기 (2)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잘못된 이유
오랫만에	오랜만에	'오래간만에'의 준말이기 때문에 '오랜만에'로 표기해야 함.
웬지	웬지	'왜인지'의 준말이기 때문에 '웬지'로 표기해야 함.
돼고	되고	'되어고'의 준말이 아니기 때문에 '돼'를 쓸 수 없음.
뵈요	뵈요	'뵈어요'의 준말이기 때문에 '뵈요'를 써야 함.
안 말았으면	안 말았으면	'아니하 말았으면'이 아닌 '아니 말았으면'이기 때문에 '아니'의 준말인 '안'을 써야 함.
맞히고	마치고	'발표회를 끝내고'의 의미로 사용했으므로 '마치다'의 활용형인 '마치고'를 써야 함.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임.
낳은	나은	'기분이 이전보다 한결 좋아진'의 의미로 사용했으므로 '낳다'의 활용형인 '나은'을 사용해야 함.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의미임.
붙어야	부쳐야	'편지를 상대에게로 보내야'의 의미로 사용했으므로 '부치다'의 활용형인 '부쳐야'를 사용해야 함.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임.
만듬	만듦	'만들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인 '만듦'을 밝혀 적어야 함.
은주한테서	은주한테서	어떤 행동을 일으킨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한테서'임.
함께	함께	'한꺼번에 같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는 '함께'임.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따라 발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로부터 지켜 온 우리말의 전통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른다고 하면서 언어생활의 '합리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규정과는 다른 발음이 더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나) 원칙적으로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ㄴ'이 '희다'처럼 자음과 함께 사용될 때나 '나의'처럼 조사로 사용될 때, 그리고 '협의'처럼 첫음절 외에 사용될 때에는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ㄴ'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마련하였다. 'ㄴ'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경우에는 [ㄴ]이 아닌 [l]로 발음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i]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음절을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나 [i]로 발음해도 된다는 뜻이다.

(다) 이번에는 '낫', '낫', '낫', '낫', '낫'을 각각 발음해 보자. 다섯 개의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단어의 받침소리인 'ㅅ', 'ㅆ', 'ㄷ', 'ㅌ', 'ㅊ'이 모두 [ㄷ]으로 발음되어 [낫]이라고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는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밖'과 '부엌'은 각각 [박]과 [부억]으로 발음해야 하며, '있다'와 '앞'은 각각 [인따]와 [입]으로 발음해야 한다.

(라) 그렇다면 받침소리로 겹받침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겹받침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를 발음하면 된다. 이때 ㉠ 발음을 하는 자음은 앞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넋'과 '값'은 앞의 받침이 발음되어 [넋]과 [갑]으로 소리 나고, '삶'은 뒤의 받침이 발음되어 [삼]으로 소리 난다.

나를 발음하면 된다. 이때 ㉠ 발음을 하는 자음은 앞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넋'과 '값'은 앞의 받침이 발음되어 [넋]과 [갑]으로 소리 나고, '삶'은 뒤의 받침이 발음되어 [삼]으로 소리 난다.

(마) 먼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이다. '밭에'와 '깎아', '흙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밭', '깎다', '흙'이 [반], [깎따], [흑]으로 발음되는 원리를 적용하면 [바테], [까가], [흐기]로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바테], [까까], [흙기]가 정확한 발음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홑받침이나 쌍받침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겹받침은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고 둘째 받침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발음해야 한다. '밭 아래'는 [바타래]가 아닌 [바다래]로 발음해야 하며, '꽃 위'는 [꼬취]가 아닌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받침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다. 한편 '닭 앞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닭[다]'처럼 독립형으로 쓸 때 발음하는 자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다가페]로 발음한다.

학습 목표 응용

01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우리나라는 표준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 ② '밭 아래'는 왜 [바타래]로 발음하지 않을까?
- ③ '낫'과 '낫'을 발음하면 왜 소리의 구분이 안 될까?
- ④ 'ㄴ'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겹받침이 받침소리로 올 경우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02 이 글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의 받침 중 발음이 다른 것은?

- ① 나뭇가지를 꺾지 마세요.
- ② 샅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했다.
- ③ 부엌과 마당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 ④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 ⑤ 우리 수탉과 점순이네 수탉이 싸우고 있었다.

2

단어의 올바른 표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한율이 푸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오늘 아침에는 ㉠오뚜기처럼 별떡 일어날 수 있었다. ㉡오랫만에 폭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한결 낫은 것 같다. 사실 동아리 회장이 돼고 난 이후부터 잠을 폭 자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 많았다. 그런데 어제 발표회를 맞히고 나니 흥가분한 기분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아마 동아리 회장을 않 맡았으면 이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은주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제 공연 포스터 밑에 '회장님과 동아리 친구들이 만듭. 은주가 씬.'이라는 글을 적어 넣은 사진과 함께 '회장님, 월요일에 뵙요'라는 인사를 보낸 것이다. 고생한 동아리 친구들에게 손 편지라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토요일 아침이다.

(나) '오랫만에'와 '오랜만에'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말이 어떤 말이 줄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은 '오래간만에'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오랫만에'가 아닌 '오랜만에'라고 써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웬지'와 '웬지'이다. 이 말은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다. 따라서 '웬지'라고 쓰면 안 되고, '웬지'라고 써야 한다.

(다) '되-'와 '돼-'의 구분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맞춤법 중 하나이다. 둘 중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될 때에는 '돼'는 '되어'가 줄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즉, '되어'로 풀어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돼'로 쓰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되어니'라고 쓸 수 없으므로 '되니'라고 써야 하며, '되었다'로 쓸 수 있으니 '뻘뻘'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다.

(라) 준말의 정확한 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이외에도 많다. '안'과 '않-'도 그중의 하나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따라서 '안'과 '않-'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줄이기 전의 형태로 바꿔 보면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않 말았으면'은 '아니하 말았으면'이 되므로 어색하다. 따라서 '아니 말았으면'이 될 수 있도록 '안 말았으면'으로 쓰든지, '말지

아니하였으면'의 준말인 '(㉢)'(으)로 표기해야 한다.

(마) ㉣ 발음이 같아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글에서 사용한 '맞히고'는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쓰려는 말은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뜻을 가진 '마치고'이다. '낫은'과 '나은'도 많이 헷갈려 하는 말인데, 위의 글에서는 '이전보다 더 좋다.'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은'으로 써야 한다. 또한 '붙여야겠다'의 '붙이다'도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라는 의미의 '부치다'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부쳐야겠다'로 고쳐야 한다.

(바) 한편 '만듭'은 '만들다'의 명사형을 잘못 쓴 것이다. '만들-'에 '-ㅁ'을 결합한 '만들다'의 명사형은 원래 형태를 밝혀 '만들'이라고 써야 한다. 반면에 '씬'은 '쓰다'의 명사형으로, '쓰-'에 '-ㅁ'이 결합해 만들어지므로 '씬'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이외에도 '은주한테서'나 '함께'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틀리는 말도 있다. 이 말들은 각각 '은주한테서', '함께'로 써야 한다.

학습 목표 응용

01 (나)~(바)를 참고하여 (가)를 쓴 학생에게 조언을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말의 원래 형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 ② 동음이의어를 쓸 때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 ③ 평소애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④ 명사형 어미 '-ㅁ'을 붙일 때에는 이전의 기본형을 잘 생각하세요.
- ⑤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보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 의 사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02 이 글을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오늘은 웬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
- ② 동생이 믹서를 사용하여 과일을 곱게 감.
- ③ 그 친구는 정답을 맞히고 기분이 좋아졌어.
- ④ 네가 두고 간 책은 내일 우편으로 부쳐 줄게.
- ⑤ 어제 집에 가다가 초등학교에 들러 선생님을 뵈어.

03 (나)~(바)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그러면 ‘오랜동안’이 아닌 ‘오랫동안’으로 써야겠구나.
- ② (다): (가)에서 ‘뵤요’도 잘못 쓴 표현이겠구나.
- ③ (라): 준말을 쓸 때에는 줄이기 전의 형태를 고려해야겠구나.
- ④ (마): ‘낱은’이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니 쓰지 말아야겠구나.
- ⑤ (바): ‘자다’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에는 ‘르’를 붙일 필요가 없겠구나.

04 ★ **중요** (다)와 관련 있는 맞춤법 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ㅣ’ 뒤에 ‘-어’가 와서 ‘ㄷ’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②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③ ‘ㄷ’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켜’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④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 ⑤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05 (라)를 참고하여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2어절로 쓰시오.

06 ㉡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어머니께서 나물을 맛있게 물히셨어요.
- ② 영화가 무서워 마음을 조리고 영화를 봤다.
- ③ 조심성이 많은 진수가 달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 ④ 민희가 책상 위에 책을 반드시 정리하고 갔어요.
- ⑤ 이번 명절에는 아버지께서 빈대떡을 부치시기로 했다.

고난도 응용

01 ★ **중요** 다음은 한글 맞춤법 규정의 총칙이다.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틀린 이유가 ㉠과 같은 것은?

제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기 】
 ㉠ 않 해도 된다는 것을 구지 헤서 멋진 소남우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정말 어의없어.

- ① 않 ② 구지 ③ 헤서
- ④ 소남우 ⑤ 어의없어

02 (나)~(바)를 참고하여 ㉢를 맞게 고쳐 쓰시오.

03 다음은 학교 앞 식당의 차림표이다.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현 6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차림표]

떡볶기 — ○○○○원	떡국 — ○○○○원
김치찌개 — ○○○○원	육계장 — ○○○○원
만두국 — ○○○○원	냉면 — ○○○○원
수제비 — ○○○○원	김치국 — ○○○○원

- 모든 메뉴 곱빼기는 ○○○○원을 추가합니다.
- 깍두기 더 드실 분들은 직접 가져다 드세요.
- 숟가락과 젓가락은 식탁 옆에 있습니다.